

#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의 출판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f the Publication and Use of Sexuality Education Books for Youth

임 여 주 (Yeojoo Lim)\*\*

### 초 록

본 연구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도서의 출판과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성교육 도서가 어린이·청소년의 성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기늴해 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독자가 성교육 도서에 접근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 편집자, 성교육 전문가, 공공도서관 사서와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성교육 도서에 관한 이들의 경험과 시각을 폭넓게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성교육 도서는 양육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직접 성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워할 때 쉽게 찾아 건네는 매체이며 성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 자료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한국에 출판된 성교육 도서 중 다수가 사춘기의 신체 변화를 다루는 '몸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여전히 성평등하지 않은 관점을 강조하는 등 그 주제와 시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성교육 도서가 키워드 중심의 단순한 정보 전달 매체이기보다, 인간 삶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성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기를 바랐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도서관에서 성교육 도서를 수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 ABSTRACT

This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examines the publication and use of sex education books for youth and considers their values and applicability to sex education for youth in the futur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book editors, sex education experts, and public librarians—those who play important roles in children and young adults' reading of sex education books—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earch participants, parents and caregivers often rely on sex education books when they find it hard to deliver sex education to their children on their own. Sex education books are also often used by sex education experts in their classes. The research participants said many sex education books that were published in South Korea only focus on 'the body education,' which deals with body changes during puberty. Gender inequality is another subject that needs to be changed. The research participants agreed that a sex education book should not just be a simple medium that delivers fragments of knowledge on sexuality but a broader learning playground where children and young adults can learn independent perspectives on sexuality based on comprehensive views on life. This study suggests a guideline for sexuality education books, which will be useful for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키워드: 성교육도서, 성교육, 어린이, 청소년, 성적 주체

Sex Education Book, Sexuality Education, Children, Young Adults, Sexual Subject

\* 본 연구는 2021학년도 부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신임교수연구정착금)에 의한 연구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yeojoolim@pusan.ac.kr)

논문접수일자 : 2023년 5월 16일 논문심사일자 : 2023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자 : 2023년 6월 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2): 205-232, 202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2.205>

\* Copyright © 2023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한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2013년 이후 교육부의 성교육 강화 방안에 따라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4,065명 중 무려 34.1%가 학교 성교육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 내용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교육 자료와 콘텐츠가 부족하며 재미가 없다는 것 등이었다(조영주 외, 2018). 특히 2015년 교육부가 배포한 성교육 표준안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을 강화하는 내용, 실제 청소년의 문화와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교육 방식 등을 이유로 발표 시점부터 현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신혜정, 2019; Haas, 2018). 이에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을 재검토해 2019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확정, 보급하겠다고 밝혔으나 2023년 4월 현재까지 개편안 작업에 대한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학교에서 성에 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어린이와 청소년이 향하는 것은 인터넷이다.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이 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은 1위가 학교(48.9%), 2위가 인터넷(22.5%) 이었다(조영주 외, 2018). 그러나 성과 관련한 자극적인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만을 골라내기란 어려운 일이다(이은경, 김영빈, 2017). 어린이가 가정에서 부모와 긍정적이고 상호적인 방식으로 성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Christensen, Wright, & Dunn, 2016), 실제 한국에서도 가정 내에서 성교육을 시도하는 양육자가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20대 이상 성인들 역시 청소년기에 학교와 가정에서 충분한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양육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지식적, 심리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권선미, 2020; 박준이, 2019). 이때 성교육 도서는 양육자와 피양육자가 독서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에 관해 대화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양육자가 직접 성교육을 시도하지 않더라도, 좋은 성교육 도서를 선별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권해줌으로써 그들이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다. 성교육 도서는 성에 관한 사실과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성장에서 성이 갖는 의미와 가치, 신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훌륭한 교육 자료이다(Venzo, 2021, 41).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청소년<sup>1)</sup> 성교육 도서를 만들고 활용하는 출판편집자, 성교육 전문가, 공공도서관 사서와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현재 한국에 출판된 성교육 도서가 어떻게 인식,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

1)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연령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즉, 영유아 역시 어린이·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된다.

보는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교육 도서가 어린이·청소년 성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가늠하고, 성교육 도서의 수서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선행 연구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도서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어린이책 출판계가 급성장하며 국내외 수많은 작가의 책이 출간되었다(김세희 외, 2008). 이에 어린이·청소년의 독서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였으나, 성교육 도서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분야에서 성교육 도서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2000년 이후 성교육 관련 도서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 열 편 정도 발표되었으나 대부분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 분석에 한정되었다(김방환, 윤신원, 2020; 남기원, 이수연, 공예린, 2016; 박수연, 김수향, 2016; 박현경, 봉진영, 2013; 정우영, 김희영, 2018; 천희영, 이귀숙, 신세니, 2009; 최문선, 2010).

2020년 이후에는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를 다룬 국내 연구가 몇 편 발표되었다. 서지은, 양성은(2021)은 어린이 문학계와 교육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추천 도서로 선정된 '나다움 어린이책'에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의 개념이 표현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나다

움어린이책 선정도서 중 저학년 독자를 대상으로 한 101권의 내용과 중심 주제를 살펴본 결과, 가장 자주 등장한 개념은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관용, 포용, 존중의 가치'였으며, '사춘기', '성과 임신에 위한 건강' 개념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임여주(2022)는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 77권을 대상으로 도서가 포함하는 주제, 표현 방식, 내포 독자의 특성, 저자의 직업 등을 분석하였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7권의 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일부이며 책을 통해 스스로 배워갈 수 있다는 안내, 그리고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 성 및 재생산에 관한 정보였다. 분석 대상 도서 중 상당수가 문장과 삽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성별 차이를 부각하고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일부 도서는 한 문장에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비판하다가 다른 문장에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식으로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성교육 도서에 관한 해외 연구 역시 도서의 내용 분석에 집중한 것이 많다. Venzo(2021)는 성교육을 주제로 한 어린이 논픽션 그림책들을 분석하며 성교육 도서가 사춘기, 재생산, 인간의 성 등에 관한 주제를 어린이 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영어권 성교육 도서를 두루 분석한 결과, 시대가 변화에 따라 성교육 도서의 내용 역시 변화를 보였다. 최근에는 어린이를 성적 주체로 인식하는 책, 성에

관해 진보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획일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인 시각에서 성을 바라보며 생물학적 지식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Venzo는 어린이·청소년과 성(sexuality)에 대한 도서 분석 연구가 대부분 픽션(소설)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가 찾아낸 유일한 논픽션 분석 연구는 유아 대상 중국 성교육 그림책을 대상으로 비평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시도한 Liang, O'Halloran, Tan(2016)의 연구와 Liang, Tan, O'Halloran(2017)의 연구이다. 두 연구 모두 중국의 유아 대상 성교육 그림책이 중국에서 강조하는 성적 가치와 도덕관념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Venzo의 연구 이후 성교육 도서를 분석한 해외 연구가 두 편 더 발표되었다. Biström(2022)은 UN의 2030지속가능발전목표(2030 United Nations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5 성평등 보장<sup>2)</sup>'을 비롯하여 인간의 성(sexuality)에 관련한 목표들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성교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웨덴 중등학교(lower secondary school<sup>3)</sup>)의 생물 교과서와 종교교육 교과서를 분석하며, 청소년이 지속 가능한 성 관련 실천 역량을 증진하는 데 교과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스웨덴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성 교육 주제는 (1) 성의 본질이 재생산에 있다는 것, (2) 남성 중심주의와 남근 중심주의, (3)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의 결합(intercourse)이 일반적인 성행위라는 것, (4) 성적 관계에서 일

부일처제(monogamy) 규범이었다. Biström은 교과서에서 다루는 성교육 내용이 규범과 표준을 강조하는 반면, 다양한 이론과 시각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지속적인 섹슈얼리티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재까지 발표된 성교육 도서 관련 연구는 대부분 도서의 내용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성교육 도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도서가 담고 있는 정보와 성에 대한 시각, 성교육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내용 분석 연구는 무척 중요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교육 도서가 어린이·청소년 독자에게 다가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김대유(2021)와 Ji, Reiss(2022)는 성교육 도서의 내용 분석과 더불어 그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검토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독자와 성교육 도서 사이의 거리를 좁히거나 멀리하게 하는 진보적, 보수적 시각을 두루 검토하였다.

김대유(2021)는 나다움어린이책에 보수단체와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결국 해당 사업이 급히 종료된 사건에 집중했다. 그는 지난 십여 년간 보건 교과서의 집필과 승인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집단 간에 갈등이 존재했음을 설명하고, 그 맥락을 바탕으로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도서의 선정성 시비 진위와 배경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2021년 현재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의 성 단원에 나오는 아동 성교육 용어 및 문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극우단체들이 외설적이라고 지적

2) 원문: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United Nations, 2015)

3) 만 13세에서 15세의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로, 한국의 중학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용어 및 문장이 보건 교과서의 성 단원에 비추어 특별히 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Ji, Reiss(2022)는 북경사범대학(Beijing Normal University)의 지도 아래 제작된 초등학교 대상 성교육 교과서 시리즈인 '珍愛生命(Cherish Lives: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교육부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성교육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필수 내용과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의 여섯 개 주제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 교과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족과 친구, 생활 기술, 젠더와 권리, 인간의 발달, 섹슈얼리티와 건강 행동,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내용을 고루 공부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해당 교과서는 생식기를 비롯한 신체 기관의 정확한 명칭 사용, 구체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여성의 자위<sup>4)</sup>에 대한 설명,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과 묘사 등을 반기는 이들과, 해당 요소를 두고 '책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다', '서양의 성교육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는 이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결국 공식 출판된 지 8년이 지난 2019년, 중국 정부에 의해 갑자기 회수 조치를 당하게 되었으나, 성교육에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여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중국의 가부장적 젠더 시스템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어린이·청소년 독자와 성교육 도서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출판 편집자, 성교육 전문가, 공공도서관 사서가 실제

로 그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도서 내용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도서의 활용 현황과 그에 대한 관계자들의 시각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이들이 경험한 사례를 통하여 성교육 도서의 활용 현황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이 연구는 사례 연구이기도 하다. Yin(2018, 9-13)은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누가(who), 무엇을(what), 어디에서(when)가 아니라 어떻게(how) 또는 왜(why)일 때 사례 연구 방법이 놀라운 강점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련의 현상을 이해하고 그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사례 연구 방법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도서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왜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독자가 성교육 도서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 즉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도서를 출판한 경험이 있는 출

4) 중국 성교육 도서에서 자위를 설명할 때는 주로 남성의 자위만 언급되며 여성의 성적 욕망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Ji & Reiss, 2022, 503).

판 편집자,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성교육 전문가, 도서관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를 심층 면담의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을 통하여 성교육 도서의 출판과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각 면담 대상자가 성교육 도서를 바라보는 시각과 고민, 성교육 도서 활용의 지향점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에 있어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와 담임교사, 사서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본 연구에서 이들을 면담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성교육 경험이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과 양육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서와 학교 안팎에서 성교육 강의를 진행하는 성교육 전문가, 성교육 도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편집자를 면담함으로써 성교육 도서의 출판과 활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 내에서의 성교육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도서의 쓰임에 관한 논의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 볼 계획이다.

면담 대상자가 '성교육 도서를 출판한 경험이 있는 출판 편집자',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성교육 전문가', '도서관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로 자격 조건이 구체적이므로, 면담 대상자는 판단추출(purposive sampling) 방식과 눈덩이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모집하였다.

면담 대상자로서 출판 편집자를 모집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면담 시작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8개월 이내, 즉 2020년 이후에 출판된 성교

육 도서를 검색하고 그 중 인터넷 서점 판매순위가 비교적 높은 도서를 추렸다. 도서의 편집 작업에 참여한 편집자에게 이메일 혹은 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물었다.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도서를 기준으로 한 것은 그 책의 편집 과정과 그때의 생각을 편집자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보낸 이메일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가 2건 있었으며, 섭외를 위한 전화 통화 후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한 경우도 1건 있었다.

성교육 전문가의 경우,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에 저자, 감수자, 혹은 추천인으로 기재된 이들에게 연락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물었다. 면담 대상자로 섭외하려던 공공도서관 사서가 추천한 성교육 전문가도 면담 대상자가 되었다. 면담 스케줄을 조정하던 중 연락이 끊긴 경우가 1건, 이메일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가 1건 있었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경우,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사서를 찾기 위해 공공도서관, 성교육, 어린이, 청소년 등의 검색어를 조합하여 인터넷 검색을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도서관 행사가 도서관 홈페이지나 지역 언론 등에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색 결과, 양육자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도서관 성교육 프로그램은 무척 많았으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단 세 건만 찾을 수 있었다. 5년 전의 자료까지 검색한 결과였다. 면담을 의뢰한 세 명의 공공도서관 사서 중 한 명은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사서 커

뮤니티를 통해 면담 대상자를 추가로 물색하던 중, 공공도서관 공간을 빌려 자녀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 사서를 알게 되었다. 비록 그 도서관에서 결국 열게 된 것은 양육자 대상 성교육 강의였으나, 그 시작이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문의였고,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고찰한 경험이 있어 본 연구의 면담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면담과 면담 대상자 모집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연구가 포화점(saturation point)에 도달했을 때 면담 대상자의 모집을 멈추었다. 결과적으로 출판 편집자 3명, 성교육 전문가 4명, 공공도서관 사서 3명이 본 연구의 면담 대상자가 되었다. 면담 대상자의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면담은 2021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전화 혹은 줌(zoom)으로 진행되었다. 추가 질문이나 자료의 공유가 필요할 때는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되었다. Tracy(2020, 158)에 의하면 반구조화 면담은 정해진 질문만 해야 하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면담 과정에서 보다 즉흥적이고 이미크적인(emic), 즉 '연구의 주제 분야에서 특히 유의미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면담 대상자의 복합적인 시각을 두루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되,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특정 질문에 관하여 더욱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가거나 즉흥적으로 새로운 질문을 만들기도 하였다. 기본 질문 목록은 공통 질문과 면담 대상자의 분야별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 참조). 가장 긴 면담은 90분, 가장

<표 1> 연구에 참가한 면담 대상자에 관한 정보

직업	가명	성별	해당 직업에서의 경력 <sup>5)</sup>	면담일 <sup>6)</sup>
출판 편집자	A	여성	7년	2021. 09. 05
	B	여성	13년	2021. 08. 20
	C	여성	20년	2021. 12. 01
성교육 전문가	D	여성	6년	2021. 10. 12
	E	여성	6년	2021. 10. 05
	F	남성	12년	2021. 11. 10
	G	여성	12년	2021. 08. 19
공공도서관 사서	H	여성	6년	2021. 09. 26
	I	여성	7년	2021. 11. 19
	J	여성	6년	2021. 11. 20

5) 경력은 면담이 진행된 2021년을 기준으로 한다.

6) 본 연구를 투고하는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면담일 이후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나 그 기간 동안 성교육 도서의 출판과 성교육 정책 등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면담 자료의 활용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 면담 기본 질문 목록

공통 질문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접해 본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 중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접해 본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 중 권하고 싶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출판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 중 국내 작가가 집필, 작화한 책과 국외 작가가 집필, 작화한 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도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도서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판 편집자 대상 질문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를 출판하면서 고민했던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의 출판에 있어 국내 작가의 책과 외국 작가의 책 중 독자들이 더 선호하는 쪽이 있나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외국 도서를 번역 출판할 때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출판하신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의 내포 독자와 실제 독자의 성별 비중은 어떠한가요?
성교육 전문가 대상 질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할 때 성교육 도서를 활용하십니까?
	어린이·청소년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할 때 성교육 도서를 활용하십니까?
	한국 성교육과 외국 성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공도서관 사서 대상 질문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적이 있다면) 그때 성교육 도서를 활용하십니까?
	(어린이·청소년의 양육자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적이 있다면) 그때 성교육 도서를 활용하십니까?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의 수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의 대출 빈도와 관내 이용 행태는 어떠한가요?

짧은 면담은 20분으로, 평균 50분간 진행되었다. 모든 면담은 녹음 후 전사(transcribe) 되었으며, NVivo와 Mindmeister를 활용해 기술적인 코딩(descriptive coding)과 축코딩(axial coding)을 거쳐 의미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면담 대상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확인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은 수정하고 논문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한국 성교육의 현재

연구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이 강조한 것은 가장 좋은 성교육 선생님이 양육자(부모)라는 것이다. 어린이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양육자이기 때문에, 성과 관련한 인식과 태도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성인 중 자신이 양육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식과 심리적 기반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며(권선미, 2020; 박준이, 2019), 많은 양육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 해주기를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양육자들이 가장 먼저 의지하는 곳은 학교이다.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고 이후 성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배치와 보건 교과서 제작, 성교육 대상의 범위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한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학년별로 연간 15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김대유, 2020; 안재희, 2021, 136; 조영주 외, 2018, 17). 그러나, 여전히 “순결교육과 생물학적 지식 전달에 머무른 금욕주의적 성교육”이 현재 학교 성교육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며, 성교육을 하는 강사나 교사의 특성에 따라 성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남미자, 이희진, 2022, 38).

본 연구에 참여한 성교육 전문가들은 이에 더해 두루뭉술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지적하였다. 성교육 전문가 G는 강의 의뢰를 하는 학교의 90% 정도가 미리 주제를 지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교육을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성교육 전문가 D는 성교육 진행 후에 학교와 학부모에게서 올 피드백이 신경 쓰인다고 말했다. 학교나 학부모가 강의에 불만을 가져 강사의 소속 기관에 항의하는 경우 다음 학기, 다음 해에 강의 의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의를 의뢰한 학교와 사전에 강의 내용의 범위를 충분히 상의하는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지루해할

만한 내용으로 강의를 채우게 된다. 어린이·청소년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교육할 역량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몇 회에 걸쳐 학생들을 꾸준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단회기로 강의하게 되는 경우 총 교육 시간인 40분 동안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성교육 전문가 G).

학교 성교육의 한계를 알고 있는 양육자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관심을 돌린다. 일부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그룹 과외의 형태로 자녀에게 성교육을 받게 한지는 오래되었으나, 미투(#Me Too) 운동과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성교육의 사교육화가 급진전 되었다(나주예, 2022; 유대근, 2018). 양육자들이 성교육 강사에 성교육을 일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소규모 성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가진 성에 대한 관점이나 수준에 맞출 수 있고, 꾸준히 진행할 경우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의 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습득할 수 있다(성교육 전문가 D).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규모 성교육 역시 단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성교육 전문가 D에 의하면 양육자들은 보통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각 한 번씩 성교육을 의뢰하며, 새로운 교육을 원하기보다는 학교에서 받지 못한 교육을 대신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이 원하는 교육은 대부분 “몸 교육”에만 머물러 있다. 성교육 전문가 G는 “앵무새”, “니팔수”와 같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임신과 출산을 설명하되 절대 성관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거나 “우리 아이가 성에 대해 잘 알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성적으로 무

성의 존재이기를 바라는” 양육자들이 성교육 강사의 입을 통해 자기 생각을 자녀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성교육 전문가 E가 소속된 성교육 전문 기관에 교육을 요청하는 사람 중에는 성소수자, 자위 등 특정 주제를 다루는 것을 걱정하거나 다루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국제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를 기반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내용을 신청자에게 설명하며, 기관의 성교육 시간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적 주제로서 성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공도서관 역시 최근 몇 년간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의 소속 기관처럼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도 더러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은 커뮤니티 서비스의 하나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바라보았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서 H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공공도서관을 자주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은 무척 친숙한 공간이고, 도서관 프로그램은 학교보다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도서관이기 때문에) 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기대가 크다. 도서관 성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요구와 사서의 기획이 맞물려 진행된다. 사서 J의 소속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이용자 설문 조사를 통해 앞으로 듣고 싶은 강의, 도서관에

바라는 점 등의 의견을 들어왔는데, 그 설문지에 어린이와 양육자 대상 성교육에 대한 요청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사서 I에게는 어느 날 학부모가 찾아와 “남학생 엄마 몇 명이 팀을 짜서 선생님을 초대해 성교육을 받으려 한다”며 도서관 스터디룸 대관을 문의했다고 한다. 성교육은 개인이 돈을 들여서 할 일이 아니라 도서관이 지역 주민을 위해 제공해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한 사서 I는 도서관 성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도서관 사정상 그해에 바로 학생 대상 성교육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우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호응이 무척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역시 성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학교나 사교육에서 진행되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지닌 한계를 똑같이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성교육 전문가들 모두 도서관에서 성교육을 진행할 때와 그 외의 기관에서 성교육을 진행할 때 뚜렷한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 4.2 한국 성교육 도서의 활용 현황

어린이·청소년이 바라는 성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교육 도서가 어린이·청소년의 성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편집자 B는 말한다. 어린이·청소년은 각기 다른 질문과 호기심을 갖고 있으며 이들 각자의 성장 단계와 정보 요구에 맞는 도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편집자 A는 미디어에서 성에 관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현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검증된 콘

텐츠가 필요하며 성교육 도서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교육 전문가 E는 실제로 어린이들이 성에 관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통로가 책이라고 말한다. 교육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만날 때 그는 “성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 알게 됐는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성’ 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뭐가 있는지, 그 느낌이나 생각, 정보를 어디에서 얻게 되었는지” 등을 항상 물어보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책과 양육자의 태도라고 한다. 성교육 전문가 E는 청소년이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 성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좋은 책이나 전문적 성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sup>7)</sup>

#### 4.2.1 양육자의 성교육 도서 활용

성교육 도서는 어린이·청소년뿐 아니라 이들의 양육자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다.

“양육자님들이랑 교육을 할 때도 아이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물어보거든요. 양육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바로 도서이고, 자기가 답변해 주기 어려우면 그냥 조용히 서점에 데리고 가서 관련된 도서를 한 권 더 사거나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 성교육 전문가 E

성교육 전문가 E는 책이 접근성이 좋은 매체라는 점에 주목했다. 성교육 전문기관을 찾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전문기관은 별도의

운영 방안과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도서관이나 서점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성교육에 책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양육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직접 성교육을 하는 대신 성교육 도서를 권해주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성교육 전문가 F는 성교육 도서가 “대안”이자 “대책”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중요한 시기에 정작 부모들은 뒤로 빠지고 원이나 학교에 맡기려고 하거나, 또는 책이나 강사나 전문가들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 교육할 때 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요. 초등학교 고학년때 부모가 성 지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필요한 부모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역할이 대체되는 것이 아쉽다. [...] 우리나라에서 그 시기에 자꾸 부모들이 다른 쪽으로 의존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 성교육 전문가 F

성교육 전문가 F에 의하면 어린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양육자들의 “성교육 니즈”(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다.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사춘기를 겪게 되는 시기에 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은 양육자가 교육하기에 가장 어려운 나이라는 인식 역시 강하다는 것이다. 성교육 전문가 G가 만난 양육자 중

7) 그는 성교육에서 성교육 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중 7~8 정도는 된다고 할 만큼 성교육 도서의 역할을 높게 봤다.

에는 성교육 공부를 많이 하여 웬만한 강사 못지않게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정작 집에서 아이와 대화를 시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지식은 있으나 소통을 어려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육자들의 태도는 출판사의 성교육 도서 기획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의 어린이·청소년을 내포 독자로 한 성교육 도서가 가장 많이 출판되고 책 판매도 비교적<sup>8)</sup> 잘 되는 편이다.

그런데, 어린이·청소년 도서는 “구매 독자와 대상 독자의 층이 다른 독특한 분야”(편집자 B)에 속하기 때문에 성교육 도서를 출판할 때 실제 대상 독자인 어린이·청소년 못지않게 양육자와 교사의 시선을 고려하게 된다. 편집자 A는 실제로 외국 도서를 번역 출판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구매자인 양육자의 시선을 무척 의식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국 정서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빼야 할지 그대로 두어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그러나 감수자와의 상의 끝에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로 했다.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랍고 [...] 어떤 부모님께서는 이게 되게 거부감이 드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또 필요한 내용이고, 사실 이런 걸 계속 덮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교육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다 넣고, 대신에 감수자 선생님의 의견을 좀 꼼꼼하게 달려고 했어요.” - 편집자 A

편집자 B는, 본인이 근무하는 출판사에서는 포괄적 성교육에 바탕을 둔 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미를 두어 책을 출간하게 되었지만, “이게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환영받을 것인가, 더 많은 부모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등을 우려하는 출판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교육 전문가 E 역시 아직 한국 사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적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에 성교육 도서를 제작하거나(양육자 또는 교사가) 활용할 때 ‘이 책을 보여줘도 괜찮을까?’, ‘이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이 책이 적합한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성교육 책을 제작할 때는 한국 사회의 성문화와 인식 태도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실을지에 관해 저자와 출판사 간에 많은 조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 4.2.2 성교육 전문가의 성교육 도서 활용

본 연구에 참여한 성교육 전문가 4명 중 3명이 본인이 진행하는 성교육 수업에서 도서를 활용한다고 말하였다.<sup>9)</sup> 출판된 책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출판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사 혹은 강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워크북이나 활동지를 만들어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성교육 도서는 1회로 끝나는 수업보다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주로 쓰인다. 어린이의 연령이 낮을수록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성교육이 아니

8) ‘비교적’이라는 어휘를 쓴 것은 성교육 도서 중에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책은 무척 드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편집자들은 질 좋은 성교육 도서가 기대만큼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9) 수업에서 성교육 도서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성교육 전문가 G도 어린이책의 한두 장면을 보여주거나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발판 삼아 강의안을 재구성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라 활동 프로그램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을 배우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성교육 전문가 F는 이를 “온도 같은 느낌”이라 표현했다. 책에 나온 이야기를 듣고 독후 활동을 통해 만들고 붙이는 작업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성의 개념을 긍정적이고 따뜻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성교육 전문가 D는 연령이 낮은 어린이들과 수업할 때 최소한 50% 이상, 많게는 70% 정도를 책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채운다고 했다. 소규모 성교육이나 학교 성교육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연령대가 초등학교 4학년 말에서 5학년 때인데, 전형적인 몸 지식 전달 교육이 너무 강도가 세게 느껴질 것 같은 어린이들이 있을 때도 책의 내용을 많이 활용한다고 했다.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 맞는 책을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성추행이 일어나거나 유아들 사이에 성적 놀이가 일어나는 경우, 책을 활용해 그 문제에 접근한다. 성교육 전문가 D가 자주 사용하는 책은 레이첼 브라이언의 그림책 <동의: 너와 나 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다. 이 책은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동의와 신체 결정권, 상호 존중의 개념을 설명하는 책이다. 성교육 전문가 D는 책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상황 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교육에 활용한다고 했다.

청소년이 스스로 책을 찾아보게 하는 방식의 교육도 있다. 성교육 전문가 E가 근무하는 센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성교육을 진행한다.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워크숍 노트에 적힌 질문을 읽고 체험관 내의 여러 ‘스팟(spot)’을 탐험하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

야 한다. 스팟 중에는 책상에 성교육 도서가 놓여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책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책을 활용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되는 셈이다.

성교육 수업에 직접 책을 활용하지 않아도 도서 목록을 제공하거나 성교육 도서 읽기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성교육 도서를 접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성교육 전문가 E는 학교에서 학생 대상 성교육 수업을 하는 경우 강의 슬라이드로 추천하는 도서를 보여준다고 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찾아보기를 권하고, 만약 학교 도서관 소장 도서가 아닌 경우 희망 도서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일러준다고 했다. 성교육 전문가 D 역시 학교에 학생 대상 성교육을 하러 갈 때 자신이 추천할 책이 그 학교 도서관에 있는지 확인해 본다고 했다. 그는 또한 소규모 성교육을 할 때 양육자들에게 “숨겨 놨던 책”을 읽히라고 안내한다고 했다. 많은 가정에서 구비하고 있는 시리즈 도서 중에는 대체로 초등학교 4학년 전후에 읽는 것이 권장되는 성교육 도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린이가 그 연령이 되었을 때 그 책을 읽고 성교육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성교육 전문가 D, E, F 모두 양육자들에게 성교육 도서 목록을 제공한다고 했다. 먼저 목록을 요청하는 양육자도 적지 않다.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드문 양육자들은 성교육 책 읽기를 통해 성에 대한 자기만의 관점을 정립해 갈 수 있다. 또한, 책에서 배운 내용을 각 가정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더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도서가 가정 내 성교육에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셈이다. 성교육 전문가 F는 양육자들에게 양육자 대상 도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대상 도서도 꼭 읽어 보기를 권한다고 했다.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자의 역할인데, 그것을 도서로 대체하려고 하거나 무작정 겁내며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어린이와 양육자가 같은 책을 읽은 후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4.2.3 도서관에서의 성교육 도서 활용

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는 그 존재만으로 의미를 가진다. 해당 도서가 일부 혹은 모든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라는 사서의 판단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책을 통해 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을 비밀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지식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은 모두 성교육 도서의 수서에 있어 다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사서 I는 “성교육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말하며, 기본적으로 성교육 전문가가 집필한 책을 신뢰한다고 했다. 사서 J는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의 자문과 감수를 거치기 때문에 성교육 전문가의 책은 믿고 수서하는 편이라고 했다. 사서 H는 대체로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책”은 수서 과정에서 거르게 된다고 말했다. ‘논란’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요소로는 한국 정서상 맞지 않은 내용, 성관계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된 그림, 양육자들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 등을 들었다. 사서 H가 기준으로 제시한 요소는 모두 단일하게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된 그림이라

판단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이용자가 이용하는 곳이므로 다양한 이용자가 생각하는 폭넓은 논란의 기준을 모두 고려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수서 방침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사서 모두 성교육 도서 수서만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사서 I는 일률적인 기준보다 독자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이가 같은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성 지식과 성 경험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학년별, 연령별로 적합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개인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어떤 주제에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그 개인에게 적절한 도서가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서 J는 다소 현실적인 조건도 언급해 주었다. 사서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과도한 한국 공공도서관 현실에서 책을 “하나하나 읽어보거나 하나하나 판단을 내릴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책 내용을 살펴보고 수서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사서는 저자와 출판사의 전문성에 더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 4.3 현재까지 출판된 성교육 도서의 한계

국내에 출판된 성교육 도서의 주제 범위와 전달 방식은 그간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미투 운동과 N번방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즈음부터는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개념을 적용하여 인권과 성평등을 강조한 성교육 도서

의 출판이 더욱 활발해졌다. 2019년부터는 성교육 전문가나 작가가 아닌 다양한 직업군의 저자가 “본인이 어렸을 때 필요로 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낸”(임여주, 2022, 443) 작품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청소년 독자들은 보다 다양한 접근법과 독특한 서술 방식의 성교육 도서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성교육 도서가 다루는 주제와 시각, 출판 방식에 아쉬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 4.3.1 성교육 도서가 다루는 주제와 시각의 한계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1) 관계, (2)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3) 젠더 이해, (4) 폭력과 안전, (5)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6) 인간의 신체와 발달, (7)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8) 성 및 재생산 건강 등,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과 성평등의 시각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다루어야 한다(UNESCO, 2018, 4).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서 출판된 성교육 도서 중 상당수가 신체적 변화에 관한 교육에 머물러있다.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성교육 도서 77권의 주제와 표현 방식 등을 분석한 임여주(2022, 435)의 연구에서도 성교육 도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 둘 중 하나<sup>10)</sup>가 신체적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자신의 신체 이름과 기능 알기, 몸에 대한 호기심(특히 성 및 재생산과 관련된 기관에 관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중, 월경 주기, 난자와 정자, 호르몬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해당 연구에서 분석한 77권 중 무려 56권의 도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성교육 전문가 D는 이렇게 많은 성교육 도서에서 “몸 교육”을 강조하거나 그 주제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학교 성교육에서 찾았다.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받는 학교 성교육이 알게 모르게 어린이·청소년 성교육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데, 학교 성교육이 여전히 몸 교육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교육 도서도 자연스럽게 몸 교육을 중심에 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국내 저자가 집필한 도서에서 많이 발견된다. 국내 저자가 집필한 도서들이 주로 사춘기 신체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면, 해외 저자가 집필한 도서들은 대체로 성평등, 다양한 성 정체성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편이다. 최근에는 국내 저자가 집필한 도서 중에도 몸 교육을 넘어 성 평등과 성적 권리를 비롯한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작품이 종종 발견되지만, 여전히 아직은 외국 도서에서 해당 내용을 찾기가 더 쉽다. 편집자 B는 “성교육서의 출판 흐름”을 짚었다. 페미니즘 리부트<sup>11)</sup> 이후 성인 도서 출판계에 페미니즘, 여성의 자

10) 가장 많이 언급된 또 다른 주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의 몸과 감정을 궁금해하고 섹슈얼리티를 탐험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책을 통해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임여주, 2022, 434).  
 11) 영화학자이자 문화평론가인 손희정이 고안해 낸 표현으로 2015년을 전후로 한 한국의 페미니즘 대중화 흐름을 일컫는 말이다. 손희정은 2015년 ‘문화/과학’ 저널을 통해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선언에서부터 메르스 갤러리(매깅)의 미러링 스피치(mirroring speech) 운동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그러나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펼쳐지는 어떤 새로운 흐름의 운동”을 ‘페미니즘 리부트’의 한 측면이라고 설명했다(손희정, 2015, 14-15).

아 찾기, 여성의 권리와 몸에 대한 고민을 다룬 책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 흐름이 어린이·청소년 도서 분야에도 이어졌으며, 특히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서에서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포괄적 성교육을 다룬 도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즈음 미투 운동과 N번방 사건이 이어졌고, 출판사들에서는 눈여겨보고 있던 해외 도서의 번역 출판을 서두르게 되었다. 출판사에서 국내 저자와의 협업을 일부러 배제한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출판할 수 있는, 이미 나와 있는 좋은 책을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현재 한국 상황에서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편집자 A; 편집자 B; 편집자 C).

많은 성교육 도서가 사춘기의 신체 변화에만 집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청소년을 무성적(無性的)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남미자, 이희진(2022, 38)에 따르면 한국에서 청소년은 오랫동안 “무성적(asexual)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청소년의 성적 욕망이나 성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은 학교 성교육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38). 청소년을 성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을 때 성교육 도서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청소년이 성적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을 때 성교육 도서는 청소년이 스스로 삶의 중심에서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가늠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폭넓게 전해줄 수 있다. 아동 성교육 전문가인 이현숙(2007)은 “‘청소년에게 성적 권리를 돌려주자’는 것은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세우자’는 뜻이며 ‘성관계를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것과 다르다. 주체적인 삶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현숙의 주장이 등장한 지 무려 1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성평등하지 않은 관점도 현재 출판된 성교육 도서의 한계로 지적되었다. 예전에 비해 여성의 성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책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성교육 도서가 남성의 관점과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교육 전문가 D에 의하면 실제 한국 청소년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가 여성의 자위이지만, 국내에 출판된 성교육 도서 중 여성의 자위를 언급하는 책은 드물다. 대부분 남성의 자위만을 언급하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성교육 전문가 F는 성교육 도서에서 남성의 자위는 다루면서 여성의 자위는 다루지 않는 것이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교육자들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성교육 전문가 D는 해외 저자가 집필한 도서에도 남성 중심의 관점이 팽배함을 지적했다.

“저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면, 여전히 여성의 오르가슴과 여성의 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대부분 남성 위주에서 남성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여성이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테크닉 같은 그런 느낌이지.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의 메커니즘이 달라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성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책은 한 권도 없더라고요.” - 성교육 전문가 D

성평등하지 않은 관점은 여성 청소년 대상 성

교육 도서와 남성 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찾을 수 있다. 성교육 전문가 F에 의하면 최근 출판되는 여성 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가치관 교육, 성 인권 교육 등인데 반해, 남성 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는 여전히 생식기 중심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실제 성교육 현장에서 남성 청소년과 가치관 교육을 진행할 때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여성혐오와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난무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남성 청소년을 만나보면 성평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차별의 해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적 욕망과 성적 권리, 성 인권에 대한 논의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성교육 전문가 D와 F의 공통된 주장이다. 성교육 도서를 집필하는 이들의 인식이 현재 청소년의 인식에 더 가까이가 갈 수 있을 때 모든 성별이 각자 자신의 성적 권리를 알고 상대방의 성적 권리를 존중하며 성적 주체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공감대를 책을 통해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 4.3.2 성교육 도서 출판 방식의 한계

성교육 전문가 F는 해외 저자가 집필한 성교육 도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인간의 총체적 삶”을 다룬다는 점을 꼽았다. 성 지식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각각의 지식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처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성이 어떤 의미이며 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

어낸다는 것이다. 사서 I는 이를 두고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과 묘사가 더 문학적”이라고 표현했다. 성교육 전문가 F는 “인간의 총체적 삶”을 다룬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덴마크의 작가이자 성 연구가인 페르 홀름 크누센이 지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sup>12)</sup>를 예로 들었다.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이후에 육아를 포함한 부모의 역할을 쭉 이야기로 다루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고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준비부터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지를 동화책 안에서 짧게나마 담아낸다는 것이죠. 성이라는 이야기를 단순히 카테고리에서 가두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성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외국 도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특징들이예요. [...] 지점 지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 내는 것이죠.” - 성교육 전문가 F

그러나, 현재 한국에 출판된 성교육 도서 중 상당수는 정확히 그 반대 지점에 있다. 많은 도서가 키워드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다. 성교육 전문가 F에 의하면 성교육 도서 대부분은 목차가 비슷하다.

“성장 부분 들어가 있고, 성 지식, 성 가치관, 인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책들. 성폭력 예방

12) 덴마크에서 1971년 출판된 이 책은 한국에 2017년에 번역, 출판되었다.

교육까지 이렇게 [...] 거의 비슷하게 목차가 만들어지거든요. [...] 아이들한테 알기 쉽게 빠르게 정보만 전달하는 형태. 근데 그게 거의 비슷해요.” - 성교육 전문가 F

성장, 성 지식, 성 가치관, 인권, 성폭력 예방 등의 큰 카테고리 아래 세부 카테고리가 배치되는 것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 성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흔히 들어가는 하위 주제는 생리, 몽정, 자위 등인데, 저자의 가치관에 따라 해당 주제를 다루는 시각만 서로 조금씩 다를 뿐 기본적인 틀은 유사하다. 성교육 전문가 F는 이렇게 많은 도서가 키워드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를 어린이·청소년의 독서행태에서 찾았다. 뇌과학자 Wolf, M. (2018)가 <다시, 책으로>에서 밝힌 것처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내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깊이 읽기’ 능력이 뇌의 읽기 회로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순간 접속하여 정답을 찾아내는 것에 익숙한 세대에게 중요한 정보를 빨리 알려주기 위해 출판사와 저자가 택한 방법이 키워드 중심, 질문과 대답 중심의 구성이라는 것이 성교육 전문가 F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이 무척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빨리 알려주기 위해 어린이·청소년의 이와 같은 독서행태에 맞추어 성교육 도서를 출판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책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며 읽지 않고 일부만 읽어내는 독서 행태는 사실 어린이·청소년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상당수의 성인 역시 그와 같은 독서 행태에 익숙하다. 김대

유(2021)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난 2020년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도서 중 일부 성교육 도서에 선정성 시비가 일었는데,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은 삽화 일부와 텍스트 일부였다. 특히 페르 홀름 크누센의 그림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의 일부 장면이 캡처되어 “노골적인 성관계 묘사”(이상원, 2020)라는 설명과 함께 각종 온라인게시판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었는데, 해당 장면이 책 전체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내포 독자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며, 해당 연령의 발달 단계 상 적절한 표현인지 등을 질문하는 이는 드물었다. 이는 지금의 성인들이 어린이·청소년이었던 시절에 총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다루는 성교육 도서를 만난 경험이 부족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에 대한 선정성 시비의 전 과정은 오히려 삶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성을 바라보는 독서 경험의 중요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 4.4 성교육 도서의 지향점

본 연구에 참여한 성교육 전문가, 출판 편집자, 사서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한 것은 성교육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교육 전문가 G는 어린이와 옷이나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질문지를 만들어 질의응답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성에 관한 이야기 역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청소년과 양육자가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도하려 할 때 성

교육 도서는 좋은 매개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같은 책을 읽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함께 답을 찾아보며 자연스럽게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교육 전문가 F는 현재 한국에 성교육 도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며, 이제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다음 단계는 “인식의 벽”을 넘는 과정이다. 연구에 참여한 이들 모두 - ‘인식의 벽’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지는 않았으나 - 한국 사회가 여전히 갖고 있는 보수적 인식을 언급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인식을 고려하여 수서 과정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출판사에서도 보수적인 인식을 가진 구매자를 의식한다. 편집자 A가 펴낸 성교육 도서에 대한 독자 반응 중에는 “되게 좋다”는 반응과 함께 “이런 것까지 알아도 될까?”, “(아이가) 좀 더 큰 다음에 읽어야겠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 편집자 A는 이를 두고 “아직 다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수적인 성 관념은 흔히 ‘한국의 정서’라는 표현으로 대치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이들도 여러 번 언급한 ‘한국의 정서’, ‘한국 정서상’이라는 표현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모호한 개념이지만, 성교육 도서를 평가하거나 비판할 때 쉽게 활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한국의 정서와 함께 자주 이야기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상황이다. 편집자 A에 의하면 최근 독자들은 해외 저자보다 국내 저자의 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까지만 해도 성교육 관련 국내서가 부족해

외국책을 많이 읽었으나, 점점 국내 저자의 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성교육뿐만 아니라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자녀교육 분야는 국내 저자를 선호하는데, 한국만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좀 더 명확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편집자 A

인권운동가이자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공동대표인 양지혜는 ‘모두’의 ‘즐거움’을 지향하는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청소년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짚었다. 그는 “본인이 본인의 삶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존중받아 본 경험이 있어야 동의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청소년의 성적 동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려면, 청소년에게 동의를 구하는 일이 일상적이어야 한다.”(김수진 외, 2022, 220)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본 한국 사회는 청소년의 의사를 거절하는 것이 일상인 사회이다. 이런 사회를 사는 청소년에게 성교육 도서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자발적 동의에 관한 내용은 거리감 있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교육 전문가 F는 성교육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 역시 보수적인 인식에서 출발해 다양한 입장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토론을 거치는 순차적인 단계를 밟았으며, 한국 역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본 연구의 참가자 대부분이 다음 단계, 즉 앞으로의 성교육 도서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의 핵심은 ‘인간 삶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인 성’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인간의 총체적 삶’을 다루는 것과 맞닿아 있다. 성교육 도서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과 행동을 배우고, 모두가 평등한 삶을 지향하며, 서로 연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린이와 청소년은 각자 자신의 성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교육 전문가 G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어느 날 갑자기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스스로 고르고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처럼 “자신의 욕구를 알고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일상적 경험”이 쌓였을 때 어린이와 청소년은 “내 몸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가진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김수진 외, 2022, 148). 이는 앞으로의 성교육 도서가 키워드 중심의 단순한 정보 전달 방식보다 등장인물이 삶에서 경험하는 선택과 결과를 통해 독자가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시각을 터득하게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편집자 B는 더 나아가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는 도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성 정체성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충분히 고민하고 안전하게 탐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성교육 도서에서 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책, 성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책, 성평등한 내용을 담은 책, 내포 독자의 연령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성 지식을 설명하는 책, 실제 어린이·청소년의 상담 사례를 담은 책 등을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추천 도서의 조건

으로 꼽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추천하는 성교육 도서의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인간 삶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담은 책
- 자신과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과 행동을 담은 책
- 모두가 평등한 삶을 지향하는 책
- 서로 연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책
- 성적 자기 결정권을 말하는 책
- 성 정체성을 안전하게 탐구할 수 있게 하는 책
-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책
- 성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책
- 성평등한 내용을 담은 책
- 내포 독자의 연령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 책
- 내포 독자의 눈높이에서 성 지식을 설명하는 책
- 실제 어린이·청소년의 상담 사례를 담은 책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은 도서는 어린이·청소년에게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 성평등하지 않은 책
- 순결을 강조하는 책
-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책
- 성폭력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부여하는 책
- 사춘기를 부정적으로 그리는 책
- 어린이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단정하는 책
-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책
- 몇몇 이슈를 짜깁기 한 책
- 성행위에 개방적일 것을 부추기는 책

최근에는 성평등한 관점에서 집필된 성교육 도서가 많이 출판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도서에서는 성별에 우위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히 종교 서적에서 많이 발견된다. 성교육 전문가 D는 “성관계를 비롯한 모든 남녀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남성이고 여성은 그들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내용이 종교를 기반으로 한 성교육 도서에 많이 담겨 있으며, 심지어 “남자는 바람을 피워도 되지만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나오는 책조차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를 포함한 세계 전반이 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희생을 강조하는 내용을 어린이·청소년에게 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다. 순결에 대한 강조 역시 종교 서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순결이 주로 여성 청소년에만 강조된다는 점이며(성교육 전문가 D), 이는 성차별적인 시각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도서도 주의해야 한다. 성교육 전문가 F는 특히 성별 특징을 매뉴얼화 한 책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남자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게끔 했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도 성 충동을 잘 못 참는다”와 같은 내용을 매뉴얼처럼 만들어 놓은 책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남성 청소년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롭지 않게 된다. 책 속 캐릭터 중 남성에게는 파란색, 여성에게는 분홍색을 부여하는 것도 여전히 많은 성교육 도서에 남아있는 관례이다. 텍스트에서는 성별 고정관념의 타파를 부르짖으면서 삽화에서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

화할 때 독자인 어린이·청소년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성교육 전문가 D).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부여하는 책들도 있다. 편집자 A가 읽었던 책 중에는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는 노래방이나 게임방 같은 밀폐된 장소가 아니라 개방적인 곳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 있었다. 이는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내용이다.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도서 중에는 성폭력 상황에서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를 외치라고 주장하는 책이 많다. 그러나 성교육 전문가 D에 의하면 이 구호는 굉장히 잘못되었으며 성폭력 상담가들과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경찰들도 싫어하는 구호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그 말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경찰들은 그 구호를 외치려 할 때 가해자가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을 우려한다. 성교육 전문가 D는 만일 부득이하게 이 구호를 담은 책을 어린이에게 읽어주어야 할 때는 죽을힘을 다해 있는 힘껏 소리치며 읽어 줄 것을 권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이 책을 가급적 읽히지 않는 것이다.

사춘기를 부정적으로 그리는지 여부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성교육 전문가 E에 의하면 사춘기는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다가온다. 분명히 개인차가 있고 사춘기 기간동안 경험하는 바 역시 다양하다. 그러나 일부 성교육 도서에서는 사춘기를 “짜증이 많이 나고 반항하는 시기”라고 단정하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전달한

다. 이는 사춘기에 다 다르거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사춘기 어린이가 자신의 발달 과정에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 그 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책, 유행하는 몇몇 이슈를 짜깁기한 책, 성행위에 개방적일 것을 부추기는 책 또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말했다.

## 5. 결론 및 제언

성교육 도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성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체이나, 과학이나 역사와 같은 다른 주제 분야의 도서에 비해 어린이·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되거나 읽기가 권장되지는 않는다. 아직도 한국 사회가 청소년을 “무성적(asexual)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남미자, 이희진, 2022, 38). 그러나, 성교육과 성교육 도서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들로 인해 국내 성교육 도서의 출판은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특히 미투 운동과 N번방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된 후부터 성교육 도서의 출판은 더욱 활발해졌다. 성교육 도서는 양육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직접 성 지식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 의존하는 대상이기도 하며, 성교육 전문가가 성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보조 도구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성교육 전문가, 출판 편집자, 공공도서관 사서는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가 대체로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교육 도서의 출판과 수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보수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구매 독자를 의식해

출판 단계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도서는 아예 수서 단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청소년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시각은 성교육 도서가 담는 주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을 성적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도서에서 다루는 주제를 사춘기의 신체 변화에 한정해 버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내 저자가 집필한 도서에서 피임과 성 정체성 등의 주제를 다룬 작품을 쉽게 찾기 어려운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해외 저자가 집필한 성교육 도서에서는 피임과 성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가 고루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몇 개의 주제를 더 다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가진 어린이·청소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각자 삶의 맥락에서 성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포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돕는다는 점이 특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앞으로 어린이·청소년이 성교육 도서를 통해 ‘인간 삶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인 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문화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성문화 이슈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문화를 반영한 좋은 책들이 지속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면 책을 선택하는 어린이, 청소년, 양육자, 교사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성교육 전문가 E는 말한다.

성교육책 읽는 것을 권장하지만 성교육 시간에 활용하는 편은 아니라고 얘기한 성교육 전문가 G는 청소년 소설을 성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김남중

의 청소년 소설 〈해방자들〉을 예로 들었다. 사랑과 출산이 통제된 가상의 국가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성장하며 투쟁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성교육 수업을 더욱 풍성한 토론과 나눔의 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해낼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사서와 성교육 전문가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 자료의 전문가인 사서는 다양한 도서를 폭넓게 접하고 이해할 뿐 아니라 도서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 또한 풍부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청소년과의 독서 프로그램에서 쌓은 노하우를 살려 토론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절한 발문 만들기를 도울 수 있으며, 토론 참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 또한, 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도서 목록을 먼저 제시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된 ‘인간 삶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주제적인 성’을 이야기하기에 문

학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일 수 있다. 문학 속 등장인물의 시각에서 삶과 사회를 바라보며 그 인물의 경험을 통해 성에 대한 관점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서는 비문학 성교육 도서를 통해 성교육의 다양한 주제를 익히고 성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며, 그를 바탕으로 성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문학을 선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성교육 전문가 G와 같은 성교육 강사들에게 좋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도서에 대한 성교육 전문가, 출판 편집자, 공공도서관 사서의 의견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에 출판된 성교육 도서의 한계와 가능성을 점검하고, 성교육 도서 수서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성교육 도서의 최종 독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 참 고 문 헌

- 권선미 (2020, 01. 20). “올바른 성의식 만들어주자” 연예계 추문에 ‘성교육 과외’ 바람. 연합뉴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38300004>
- 김대유 (2020). 학생 성교육의 법적체계에 대한 고찰: 성교육표준안의 모순과 성교육에 대한 압력을 중심으로. 한국보건교육학회지, 6(1), 1-15. <http://doi.org/10.36031/KJHE.6.1>
- 김대유 (2021). 아동 성교육 도서의 선정성 논란에 대한 고찰: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사업 시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교육학회지, 7(1), 1-13.
- 김방환, 윤신원 (2020). ‘나다움어린이책’에 수록된 양성평등 그림책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1(2), 87-109. <http://doi.org/10.22154/JCLE.21.2.4>

- 김세희, 현은자, 오연주, 고선주, 이성엽, 조은숙, 마사키 겐이치, 김민건 (2008). 세계 그림책의 역사. 서울: 학지사.
- 김수진, 나영정, 노하연, 신연정, 양지혜, 오지연, 이성경, 이한, 이현주, 장재영, 정민재, 조아라 (2022). 포괄적 성교육. 서울: 학이시습.
- 나주예 (2022. 02. 14). 소변 참는 훈련해야 성범죄 방지?...검증 없이 퍼지는 성교육 과외업체. 한국일보,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1111400003082?did=NA>
- 남기원, 이수연, 공예린 (2016). 유아 성교육 그림책 교육내용 분석: 2015 유치원 성교육표준안을 7기준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245-268.
- 남미자, 이희진 (2022). 초중등학교 성교육의 대안적 접근: 성적 시민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8(1), 37-71. <http://doi.org/10.30719/JKWS.2022.03.38.1.37>
- 박수연, 김수향 (2016).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성교육 그림책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1), 167-188.
- 박준이 (2019. 12. 20). 더 빨리 크는 아이들, 성교육 부끄러워하는 부모들. *머니투데이*,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2008022854194>
- 박현경, 봉진영 (2013). 그림책에 나타난 아동 성폭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3), 157-184.
- 서지은, 양성은 (2021). 포괄적 성교육 개념에 근거한 나다움어린이책의 젠더감수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8), 593-607. <http://doi.org/10.5392/JKCA.2021.21.08.593>
- 손희정 (2015). 페미니즘 리부트: 한국 영화를 통해 보는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그 이후. *문화과학*, 83, 14-47.
- 신혜정 (2019. 07. 10). 성차별 가르치는 '학교 성교육' 언제 바꾸나. *한국일보*,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71805080120>
- 안재희 (2021). 학부모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분석. *여성학연구*, 31(1), 135-176. <http://doi.org/10.22772/pnujws.31.1.202104.135>
- 유대근 (2018. 03. 12) "학교 성교육 있으나 마나" 사교육 찾는 엄마들. *서울신문*,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13009002>
- 이상원 (2020. 09. 17). '나다움 어린이책 논란' 방황하는 한국의 성교육. *시스HN*, 출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12>
- 이은경, 김영빈 (2017). 유아 부모를 위한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여성학연구*, 27(1), 143-182. <http://doi.org/10.22772/pnujws.27.1.201702.143>
- 이현숙 (2007. 4. 24). [커버스토리] 청소년에게 '성적 권리'를 돌려주자. *주간경향*, 출처: [http://weekly.khan.co.kr/khnm.html?www&mode=view&art\\_id=14223&dept=](http://weekly.khan.co.kr/khnm.html?www&mode=view&art_id=14223&dept=)
- 임여주 (2022).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의 현황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425-454. <http://doi.org/10.14699/kbiblia.2022.33.1.425>

- 정우영, 김희영 (2018). 유아 성교육 관련 국내 학술지 연구 동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7(1), 107-131.  
<http://doi.org/10.21183/kjcm.2018.03.17.1.107>
- 조영주, 김동식, 남궁윤영, 이혜경 (2018).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천희영, 이귀숙, 신세니 (2009). 유아 성학대 예방교육을 위한 그림책의 내용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321-347.
- 최문선 (2010). 성교육 그림책 연구: 야노쉬의 〈엄마 말해 주세요, 누가 아이를 만드나요?〉를 중심으로. *헤세연구*, 23, 203-224.
- Wolf, M. (2018). *Readers Come Home: The Reading Brain in a Digital World*. 전병근 옮김 (2019). *다시, 책으로*. 서울: 어크로스.
- Biström, E. (2022). Action competence for sustainable sexuality: an analysis of Swedish lower secondary level textbooks in biology and religious education. *Sex Education*, 22(5), 538-551.  
<https://doi.org/10.1080/14681811.2021.1966408>
- Christensen, M. C., Wright, R., & Dunn, J. (2016). 'It's awkward stuff': conversations about sexuality with young children. *Child & Family Social Work*, 22(2), 711-720.  
<https://doi.org/10.1111/cfs.12287>
- Haas, B. (2018, Dec 12.). 'Blatantly Sexist': Backlash against South Korea's sex education. *The Guardian*. Availabl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dec/28/south-koreas-sexist-sex-education>
- Ji, Y. & Reiss, M. J. (2022). Cherish lives? progress and compromise in sexuality education textbooks produced in contemporary China. *Sex Education*, 22(4), 496-519.  
<https://doi.org/10.1080/14681811.2021.1955670>
- Liang, J. Y., O'Halloran, K., & Tan, S. (2016). Where do I come from? metaphors in sex education picture books for young children in China. *Metaphor and Symbol*, 31(3), 179-193.  
<http://dx.doi.org/10.1080/10926488.2016.1187039>
- Liang, J. Y., Tan, S., & O'Halloran, K. (2017). Representing sexuality and morality in sex education picture books in contemporary China. *Social Semiotics*, 27(1), 107-126.  
<http://dx.doi.org/10.1080/10350330.2016.1161117>
- Tracy, S. J. (2020).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2nd ed.). NJ: Wiley Blackwell.
- UNESCO (2018).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An evidence-informed approach*. UNESCO. Availabl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60770>
-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Available:

<https://sdgs.un.org/2030agenda>

Venzo, P. (2021). That 'Tingly Feeling': sex and sexuality in children's nonfiction picture books. In Venzo, Moruzi ed. *Sexuality in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NY: Routledge, 29-43.

Yin, R. K. (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CA: Sage Publication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hn, Jae Hee (2021). An analysis of parents' awareness and needs for sexuality education in schools. *PNU Journals of Women's Studies*, 31(1), 135-175.

<http://doi.org/10.22772/pnujws.31.1.202104.135>

Cho, Young-Ju, Kim, Dong-Sik, Nam-Gung, Yun-Young, & Lee, Hye-Kyong (2018). A study on demand survey on sexuality education for youth.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Choi, Moon Sun (2010). Zum genre der Aufklärungsbilderbücher - am Beispiel von Janoschs Mutter sag, wer macht die Kinder? *Hesse-Forschung*, 23, 203-224.

Chun, Hui-Young, Lee, Gui-Sook, & Shiin, Se-Ni (2009). A contents analysis of picture books for prevention of young child sexual abuse: focused on the factors of cognitive and coping skill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321-347.

Jeong, Woo-Young, & Kim, Hee-Young (2018). Early childhood sex education research trend.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17(1), 107-131.

<http://doi.org/10.21183/kjcm.2018.03.17.1.107>

Kim, Bang-Hwan & Yoon, Shin-Won (2020). A study on picture books about gender equality in the 'Nadaum Children Book' list.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21(2), 87-109. <http://doi.org/10.22154/JCLE.21.2.4>

Kim, Dae You (2020).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student sexuality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6, 1-15. <http://doi.org/10.36031/KJHE.6.1>

Kim, Dae You (2021). A study on the controversy over the selectivity of children's sex education book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7, 1-13.

Kim, Se-Hee, Hyun, Eun-Ja, Oh, Yeon-Ju, Go, Seon-Ju, Lee, Sung-Yeop, Joh, Eun-Sook, Masaki,

- Kenichi, & Kim, Min-Geon (2008). *History of World Picture Books*. Seoul: Hakjisa.
- Kim, Soo-Jin, Na, Young-Jeong, Noh, Ha-Yeon, Shin, Yeon-Jeong, Yang, Ji-Hye, Oh, Ji-Yeon, Lee, Sung-Kyung, Lee, Han, Lee, Hyun-Ju, Jang, Jae-Young, Jeong, Min-Jae, & Joh, A-Ra (2022).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Seoul: Hakyisiseup.
- Kwon, Seon-Mi (2020, Jan 20.). "Let children have upright awareness of sexuality": 'sex education tutoring' trend starting from scandals in entertainment business. *Yonhap News*. Available: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38300004>
- Lee, Eunkyung & Kim, Youngbin (2017). The development and effects analysis of a sexuality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with children in early childhood. *PNU Journals of Womens Studies*, 27(1), 143-182. <http://doi.org/10.22772/pnujws.27.1.201702.143>
- Lee, Hyun-Sook (2007, Apr 24.). [Cover Story] Return 'sexual right' to young adults. *Weekly Kyunghyang*. Available: [http://weekly.khan.co.kr/khnm.html?www&mode=view&art\\_id=14223&dept=](http://weekly.khan.co.kr/khnm.html?www&mode=view&art_id=14223&dept=)
- Lee, Sang-Won (2020, Sep 17.). 'Controversy over Nadaum Eorinichaek': Wandering Korean sex education. *SisaIN*. Available: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12>
- Lim, Yeojo (2022). An analysis of sexuality education book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1), 425-454. <http://doi.org/10.14699/kbiblia.2022.33.1.425>
- Na, Joo-Ye (2022, Feb 14.). Practice of holding in pee prevents sexual crime? ... Spreading sex education agencies without proper verification. *Hankookilbo*. Available: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1111400003082?did=NA>
- Nam, Ki Won, Lee, Su Youn, & Kong, Ye Rin (2016). Analysis of picture books for sex education in young children: with the 15 general standard for kindergarten sexual education.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7(4), 245-268. <http://dx.doi.org/10.22154/JCLE.17.4.11>
- Park, Hyung-Kyung & Bong, Jin-Young (2013). Child sexual abuse represented in children's picture book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4(3), 157-184.
- Park, Joon-Yee (2019, Dec 20.). Children who are growing faster, parents who are shy in sex education. *Moneytoday*. Available: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2008022854194>
- Park, Su-Yeon & Kim, Soo-Hyang (2016). Analysis of picture books on sex education presented by the Nuri curriculum for ages 3-5year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7(1), 167-188.

- Shin, Hye-Jeong (2019, Jul 10.). When can we change 'school sex education' that teaches sexism. Hankookilbo. Available: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71805080120>
- So, Jieun, & Yang, Sungeun (2021). Analysis of the concepts underpinning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in Nadaum Children's Book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8), 593-607. <https://doi.org/10.5392/JKCA.2021.21.08.593>
- Sohn Hee-jeong (2015). Feminism reboot: Post-feminism seen through Korean films and after. Cultural Science, 83, 14-47.
- Wolf, M. (2018). Readers Come Home: The Reading Brain in a Digital World. Translated by Jeon, Byeong-Geun (2019). Seoul: Across.
- Yoo, Dae-Geun (2018, Mar 12.). "School sex education is useless" Mothers looking for private tutoring. Seoul Shinmun. Available: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13009002>